

圖書分類와 圖書記號에 關한 小考

— 小 圖書館의 資料整理를 中心으로 —

李 東 昫

圖書의 分類와 圖書記號

책을 分類하고 圖書記號를 決定하여 請求番號를 만드는 것은 書架上에 책을 순서대로 排列하여 職員이 쉽게 圖書를 檢索 할수 있게하고 또 開架式 圖書館에 있어서는 利用者가 容易하게 圖書를 찾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따라서 只今까지 各樣各色的 圖書分類法과 圖書記號(著者記號)가 나와서 큰圖書館에 있어서는 이것을 採用하여 일을 쉽게 할수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實情으로는 藏書數가 적고 圖書分類에 대한 知識이 없는 初中高等學校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러한 圖書分類法과 圖書記號가 非能率의이고 또 많은 經費와 時間을 浪費하여 가르치는데 바분 不足된 數의 敎員組織으로서는 이를 감당하기 困難한 處地이기 때문에 學校圖書館에서 數年 經驗한 結果 藏書數가 1,000~20,000 卷 程度의 圖書館에 適當한 다음과 같은 圖書分類表와 圖書記號表를 提案하여 一線 實務者의 參考에 供코자 한다.

1. 圖書의 分類

우리나라의 圖書의 分類는 主로 듀이 十進分類法(Dewey Decimal Classification 略해서 D.D.C.)과 朝鮮十進分類法(朴奉石編) 및 韓國十進分類法(Korean Decimed Classification 略해서 K.D.C.) 1964年版)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느 것이나 知識의 分野를 열개로 나누어 “類”로하고 다시 類를 100區分 하여 “綱”으로 하여 綱을 또 1,000區分하여 “目”으로 한다. 이와 같이 目は 다시 細分되어 10,000區分 100,000區分할수 있으니 규모가 적은 圖書館에서는 많은 時間을 消費하면서 그렇게 細分할 必要가 없으니 여기에 알맞는 分類表가 要求된다. K.D.C.만 하더라도 한권한권의 책을 分類할때 마다 634 page의 巨하는 分類法 冊字를 일일이 辭典 찾든지 뒤지는 것은 小圖書館에서는 時間과 精力의 浪費이다.

따라서 여기에 別紙 圖書分類表(도표1)를 권장하는 바이다. 이표는 K.D.C.(韓國圖協 1964年版)의 分類表

를 1,000區分까지 制限하여서 一見하여 把握할수 있도록 圖書化한 것이다. 조금 未洽한 點에 修正을 加하고 싶으나 全國 圖書館의 藏書數 統計等, 全國的 行事に 혼란을 避하고 K.D.C.와 關聯을 가질수 있도록 그대로 適用하였다. 따라서 작은 圖書館에 있어서는 이표를 큰 神經을 쓰지 아니하고 그대로 適用하여도 適切할 줄 믿는다.

圖書分類에 있어서 가장 主要한 것이 助記性인데 이表에서는 1,000區分이라는 制限으로 因하여 K.D.C.와 같이 多樣하게는 할수 없으나 그래도 多小 加味되어 있다. 假令 K.D.C.에서 農業大事典을 一般形式區分을 適用하여 細分하여 520.3의 農業 또는 農學事典으로 分類하였으나 이表에서는 3자리의 制限으로 503의 技術科學의 事典으로 分類하는데 그친다. 그러나 科學事典은 K.D.C.에 있어서나 본表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403으로 純粹科學에 分類되는 것이다. 또 助記性的인 言語共通區分에서도 K.D.C.는 國語辭典을 713.1로 分類하나 이表에서 713에까지 分類하고 그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이表는 分類의 生命인 助記性이 完全하지는 못하나 相當히 適用되어 있고 또 K.D.C.를 그대로 받아드려서 分類한다면 634 page를 일일이 뒤지는 것을 이表는 一目瞭然하게 한장에 收錄하였으니 大端히 分類에 도움이 될 줄 생각한다.

2. 圖書記號(著者記號)

圖書記號는 같은 分類內에 있는 책을 二次的으로 區分하여 個個의 圖書의 位置를 決定하는 記號인데 그記號를 配當하는 方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즉 圖書의 受入順 또는 圖書의 刊行年代別로 數字만 붙여서 排列하는 方法과 姓名의 머리에서 한자리 또는 두자리까지 글자를 따서 圖書記號로 定하는 方法이 있다.

우리나라의 著者記號로서는 이재철(延大)式과 장일세(梨大)式이 代表的인데 이재철式은 姓名의 처음자를 한글로 쓰고 그다음자는 子音과 母音을 數字로 記號化한것을 利用하는 것이고 장일세式은 韓國人 10萬名과 西洋人과 日本人 2萬5千名의 姓名을 調査하여 그使用

되는 頻度의 統計에 의하여 만들어진 著者記號로 7page 에 巨하는 記號인으로서 큰 圖書館에서는 理想的이나 小圖書館에서는 도리어 不便하다. 따라서 여기에 提案하는 圖書記號表(도표2)는 이제철式에 한거름 나가서 姓名의 子音과 母音을 數字로 記號化하되 子音은 다시 初聲과 終聲으로 나누어서 10區分으로 細分하여 記號를 配當하는 것이다. 初聲과 終聲을 各各 記號化하나 助記性 즉 記憶을 쉽게 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排列로 記號를 配當하였다.

본표는 姓名의 첫째자는 그대로 한글로 적어서 著者記號의 첫째 記號로 삼고 둘째자부터 글씨쓰는 순서(初聲, 中聲, 終聲의 順)로 數字로 記號를 配當하였다.

예를들면 作者 이광수의 著者記號는 이 04766이다. (이제철式은 이 16657이다) 日本 作家 原田ヤス子=하라다야스코는 하 3020이다. 西洋人 Hemingway=헤밍웨이는 헤 49776이 된다. 또 이와 같이 著者기호가 길게 必要없는 小圖書館은 이광수는 이 047로 하라다야스코는 하 30으로 헤밍웨이는 헤 497로 簡略하게 줄여서 쓸수도 있다.

또 同一 著者의 圖書가 두개 이상일때는 가령 이광수著 사랑과 흙은 이 047스 이 047ㅎ 등으로 區別하

고 사랑의 再版은 이 047스2로 표시한다.

以上에 설명한 것을 分類記號와 著者記號를 아울러 請求記號로 만든다면은 다음과 같다.

- [例] 이광수著 흙의 下卷은
- 813.....분류기호
 - 이 047ㅎ저자기호
 - 2.....卷次번호
 - 이광수著 흙의 下卷 複本은
 - 813.....분류기호
 - 이 047ㅎ저자기호
 - 2=2卷次번호와 複本기호

위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實情으로는 司書敎師가 授業도 담당하고 圖書館도 開館해야 하는 二律背反的 兩立狀態에서는 人力의 限度가 있으니 以上과 같은 事務的 簡素化는 圖書의 排架가 조금도 軌道에서 벗어 나지 아니하고 合理的으로 運營되는 方法으로 自負하고 小圖書館에 適用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다시말하면 이 分類表와 圖書記號表는 各各 한장에 收錄되어 圖表化 하였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揭示를 하여 쉽게 利用할수 있는 便利한 點이 있다는 것이다. 別表 1,2參照(筆者 安東農林高 司書敎師)

(16面에서 繼續)

gress의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에 依據해서 Self list, 著者, 書名, 分類目録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主題索引(Subject index)을 새로운 主題가 생길때 마다 우리말과 世界 共通語인 英語로서 만들어 한층 더 독자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장 問題點이 많은 日本語 圖書는 모두 カナ(假名)化하여 日本語 圖書固有의 카드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整理하는데 있어 상당한 時間과 努力을 要하게 되나 다른 圖書館들에서 많이 하고있는 우리말대로의 表記方法 보다는 훨씬 合理性이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古書整理가 빈약하다는것이 우리 圖書館의 가장 큰 缺點으로 속히 보다 充實을 期하려고 努力하고 있으며 非冊字 資料로서는 상당수의 Micro film, 음반, 램프렛등이 정리되고 있으며 덜지않아서 主要 新聞의 索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結言으로 클머리에서 말씀드렸던 圖書館法 施行令公布란 기쁨과 더불어 “공든 탑이 무너지랴” 또는 “노력의 代價는 반드시 온다”라는 絶對的인 信念으로 우리 學界의 指導者들은 더욱 분투노력하시기를 期待하며

또한 나 個人으로서 바라고 싶은 點은 모든 點에 未熟한 愚人이 新設大學의 圖書館 發展을 좌우하는 重責을 맡고 있으므로 항상 여러 先輩任들의 끊임없는 指導와 鞭撻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再言컨대 圖書館의 藏書數를 늘이는 것만이 圖書館發展이 아니고 모든 行政 組織面이나 資料整理面이나 奉仕面에서 보다 훌륭한 方法이 채택돼야 한다는 點에서 좀더 수시로 意見を 交換할수 있는 機會를 마련하여 相互間에 기반없는 어려운 問題들을 터놓고 議論되어 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以外에도 여러가지 積極的인 方法으로 계속 꾸준히 研究하여 나감으로써 社會로부터의 좋은 反應을 期待할수도 있음으로 因해 보다 더 빠른 發展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바라고 싶은 點은 可能한 일이라면 圖書館 資料交換 事務室(Book Exchange Center) 같은것을 設立하여 各 圖書館 相互間에 資料를 交換하며 보다 나아가서는 各 圖書館 相互間의 Inter-Library Loan System 이 이루어져 지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圖書館 紹介를 마칩니다. 不足한 글 讀者들의 많은 諒察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西江大學 圖書館 司書長)